

希望仁川時代開く

희망 인천시대 열다

民選6期を開く 민선 6기를 열다
劉正福(ユ・ジョンボク)市長就任 유정복 시장 취임



‘希望仁川’の帆が力強くあがった。民選6期・仁川を率いる劉正福(ユ・ジョンボク)市長が7月1日、就任。

午前10時、仁川総合文芸会館で開かれた就任式には、歴代市長、政党代表、国会議員、北韓離脱住民、多文化家庭、そしてほかの市民など、1,500人余りが出席した。就任式では、国民儀礼、略歴紹介、就任宣誓、就任の挨拶、花束贈呈、お祝いメッセージの朗読、お祝いの公演などが行われた。

劉市長は就任のあいさつを通じて、“どの都市よりも豊かな発展の可能性を持つ仁川が、跳躍していかなければ、国家の発展も実現できない。”“朴槿恵(パク・グンヘ)大統領とともに、創造都市として、特化発展をさせていくつもりである。”と述べた。

彼はまた、“仁川の発展を通じ、仁川市民の幸福を遂げていくことはもちろん、国家の発展をも先導していくような戦略が切実である。”と強調。またこれと共に、アジア競技大会の開催成功、市民が幸せな都市、公職社会革新、市民の和合などを約束し、偉大な仁川時代を開いていくと表明した。

就任式は、社会的環境と雰囲気考慮し、静かに質素に構成された。祝賀公演も、障害者と健常者が一つになり、多様な市民が手と手をつなぎ、一緒になって進んでいくことを促す公演が披露された。発達障害者の青年芸術家で構成された‘夢見る村・永宗芸術団’は、ピョンダル王女とオンダル王子の踊りを創作、2014、仁川(インチョン)アジア大会の主題歌‘オンリーワン’に合わせ、楽しいチュムパンを披露し、市民からの好評を浴びた。

就任式に先立ち劉市長は、寿鳳公園の顕忠塔参拝ののち、市役所前の未来広場に設置された、セウォル号の合同焼香所で犠牲者の靈魂を慰めた。この席で、遺族たちに会い、短い対話を交し、慰めの言葉をかけ、遺族たちに今後の面談を約束した。

就任式を終えた劉市長は、市役所の構内食堂で、請願警察・警備員・環境美化員など、全ての部署の職員50名と一緒に昼食をし、現場の苦情を聴取。それに続き、市の老人福祉館と海星保育園の訪問を最後に、市長としての初日の日程を終えた。

‘希望 仁川’の 뜻이 힘차게 올랐다. 민선 6기 인천을 이끌어갈 유정복 시장이 7월 1일 취임했다.

오전 10시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역대시장, 정당대표, 국회의원, 새터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천이 도약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발전도 이룰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창조도시로 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발전을 통해 인천시민의 행복을 이루어 나감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도 선도해나가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직사회 혁신, 시민화합 등을 약속하며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용하고 검소하게 구성했다. 축하공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돼 다양한 시민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의미의 공연을 선보였다.

취임식에 앞서 유 시장은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한데 이어 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넋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에게 향후 면담을 약속했다.

취임식을 마친 유 시장은 시청 구내식당에서 청원경찰·방호원·환경미화원 등 격무 부서 직원 50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시 노인복지관과 해성보육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장으로서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민영 편집장

文・□□ 키로민ヨン(김민영)編集長□
gem0701@hanmail.net

Photo News



仁川に‘暑い月’が出た 인천에 ‘더운 달’ 떴다

他国で身寄らない孤独な日常を送っている外国人、イスラム教徒の人々に故郷の‘暑い月’が、国境を越え浮かび上がった。ラマダンはアラブ語で、‘暑い月’を意味する。ラマダンの儀式は、9回目の月の始まりを知らせる三日月が現れた次の日から、1ヶ月間の断食へとつながる。彼らはまず、ホコリのついた靴を脱ぎ、神に近寄るために心を引き締めていく。昼間の断食によって、謙遜と配慮を実践するラマダンの始まりは、サウジアラビアの聖地、メッカから伝わり全世界にひろがった。今年のラマダンの期間は、6月 0日から7月0日までだ。

타국에서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 이슬람교인들에게 고향의 ‘더운 달’이 국경을 넘어 떠올랐다.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을 뜻한다. 라마단의 의식은 9번째 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생달이 나타난 다음날부터 한 달 동안 단식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먼저 묻은 신발을 벗고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낮 동안의 금식으로 겸손과 배려를 실천하는 라마단의 시작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성지)에서 정해져 전 세계로 퍼진다. 올해의 라마단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 키로민ヨン(김민영)編集長□
gem0701@hanmail.net



열정의물결, 이제 시작이다!
情熱の波, いよいよはじまる!

2014 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10.18 - 10.24

主催 アジア障害者オリンピック委員会(APC)
主管 2014 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組織委員会
場所 仁川広域市 及び 協力都市 (安養, 河南)
参加規模 42ヶ国 6,000余名(選手団 4800名, メディア 1200名)
SNS blog.incheon2014apg.org
Website www.incheon2014apg.org

주최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주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장소 인천광역시 및 협력 도시(안양, 하남)
참가규모 42개국 6,000여명 (선수단 4800명, 미디어 1200명)
SNS blog.incheon2014apg.org
홈페이지 www.incheon2014apg.org

“韓国生活の喜怒哀楽, 共に分かち合う”

“한국생활의 희노애락, 함께 나눠요”

フィリピン伝統舞踊サークル‘タマヤン(다마얀)’ 필리핀 전통무용 동아리 ‘다마얀’



嬉しいときも悲しいときも ‘友だち’ というのは、いちばん大きな心の癒し。特に故郷を離れて暮らしをはじめたばかりの移住民たちには、友だちは、ときに友だち以上の役割を果たしてくれる。生活を共有し、お互いをかばい合う彼女たちは、‘タマヤン’という名でフィリピン移住女性たちに手を差し伸べている。

‘タマヤン’はフィリピン語で、‘手をつなぎあって共に助け合う’という意味。彼女たちは、定期的に集いフィリピン伝統舞踊を通じ、郷愁の念を癒している。伝統音楽に合わせ ‘壺の舞い’を 練習する身振りは控えめで優雅だ。彼女たちは、はじめから舞踊サークルとして名が知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かった。‘タマヤン’は、 2005年にはじめて集まり、お互いが友だち同士になった。故郷のことばで韓国生活の大変さを話し、互いに共感することだけでも彼女たちには大きな力になっていった。そんな頃、多文化行事に招請され伝統舞踊を披露したことがこののはじまり。それは、2006年のことだった。韓国社会の一員としての役割をみつけたわけだ。彼女たちは舞踊からさらに前進し、多文化女

性の暮らしを主題とした演劇をつくり、大きな反響を得ている。

マリア(39)さんは、その時のことを回想した。“私たちが経験した私たちの話をしなければ、と思ったんです。富平文化通りが初の演劇舞台でした。舞踊と演劇で何度となく舞台に立ったので、まわりの人たちが覚えてくれているんですよ。タクシーの運転手さんも私たちを覚えていてくれました。その時、思ったんです。あつ、私たち、移住女性を代表して大事なことをやっているんだ。韓国の人たちに私たちの存在を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って。”

その後、彼女たちは、多様な活動を繰り広げ始めた。毎年、定期的な行事を開き、人権運動に参加する等、多方面において ‘タマヤン’の名を 知らせている。最近、多文化家庭の子供たちで構成された ‘リトル タマヤン’ 活動を支援することに力を注いでいる。子供たち自身がアイデンティティを失わず、多様な文化 の中で堂々と立ち上がっていけるようにさせるためである。

彼女たちの活動範囲が広がるにつれ、いつの日からか韓国生活をする移住民た

ちから ‘辛いことがあれば、タマヤンにいつてごらん。’ということばを耳にするようになった。彼女たちは、昼も夜も助けを求める移住民たちのために靴を履いて乗り出している。家庭暴力に苦しんでいる移住民女性、会社との葛藤を経験している移住民労働者など、タマヤンは、韓国生活で困難を抱える全ての人たちの見方。舞台の上では誰よりも美しく、舞台の外では誰にも増して一丸となった姿で、今日も彼女たちは手に手をとってしっかりと前進している。

기쁘거나 슬프거나 ‘친구’는 가장 큰 위안이 된다. 특히 타향살이를 시작한 이주민들에게 친구는 친구 이상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이들은 ‘다마얀’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이주여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다마얀’은 필리핀어로 ‘손을 맞잡고 함께 돕는다’는 뜻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필리핀 전통무용을 통해 향수를 달랜다. 전통음악에 맞춰 ‘항아리 춤’을 연습하는 그들의 몸짓은 조심스럽고 우아하다. 그들이 처음부터 무용동아리로 이름을 알린 것은 아니다. ‘다마얀’은 2005년 처음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다. 고향의 말로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됐다. 그러던 중 다문화행사에 초청돼 전통무용을 선보이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때가 2006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무용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여성의 삶을 주제로 연극을 꾸몄고, 큰 호응을 얻었다.

마리아(39) 씨는 그때의 일을 회상한다. “우리가 겪은 우

리의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평문화의 거리가 첫 연극무대였죠. 무용과 연극으로 여러차례 무대에 서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택시기사 아저씨도 저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아, 우리가 이 주여성을 대표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겠구나.”

이후 그들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매년 정기적인 행사를 열고,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다마얀’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리틀 다마얀’ 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한국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다마얀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신발을 신고 나선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 등 다마얀은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의 편이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무대 밖에선 누구보다 푹푹 뭉친 모습으로, 오늘도 그들은 손을 잡고 당차게 나아가고 있다.

글·사진 차지는 기자
챠 ஜ운(차지은) 記者 · minsable@hanmail.net



中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先月6月 14日(土) トシンフォニエッタと連携し、多文化家庭 夫婦の結婚式を行った。この行事を通じて結婚した、中国からの結婚移民女性チャン〇〇さんは、式場、礼服、飲食、才能寄附などを、いろいろな機関と個人から後援を受け幸福な結婚式を挙げる事ができた。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14일(토) I-신포니에타와 연계해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결혼한 중국 결혼이민여성 장씨는 식장, 예복, 음식, 재능기부 등 여러 기관과 개인의 후원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었다.

東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東区共同育児シェア場(나눔터)へ、多文化講師を派遣した。6月 2日から行われている子女対象の多文化講師活動では、カンボジア4回期が行われている。カンボジアについての多様な情報ははじめ、踊り、運動、料理を指導。また、6月 16日からは、東区共同育児シェア場を利用し、母親たちを対象にした日本語会話や、日本についての関連活動が行われる。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동구공동육아나눔터에 다문화강사를 파견했다. 6월 2일부터 진행된 자녀 대상 다문화강사활동에는 캄보디아 4회가 진행되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춤, 운동, 요리에 대해 가르쳤다. 또한 6월 16일부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회화 등 일본 관련 활동이 진행됐다.

南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6月 19日, 20日、南区ソソン路 189にある 5階建ての建物にセンターを移転。これまで建物を賃貸使用していたが、区の支援や多文化家族の便宜により、安息の場を設けることができた。センターには、教室と相談室が用意され、韓国語教育及び、多文化家族のための多様なプログラム、相談などのサービスを円滑に進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월 19일, 20일에 남구 소성로 189에 있는 5층 건물로 센터를 이전했다. 센터에는 교육실과 상담실이 마련돼 있어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 상담 등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延壽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延壽区内の多文化家族、及び一般家族、片親家庭を対象とした、多文化理解のための同伴体験を行なった。このプログラムは、2014年 1月から12月まで分期的に進められる。プログラムの主要内容を見ると、韓国民俗村体験(韓国の歴史の中へ)、加平サンネドゥル体験村(子供と一緒に週末のおでかけ)、臨津閣体験(我々の願いは統一)、임실(임실) 치즈村(私が作った피자가最高!)等。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수구 내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다문화이해하기 동반체험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월부터 12월 까지 분기별로 진행한

'異'を'調和'に ‘다름’을 ‘어울림’으로

移住民社会統合支援センター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毎朝10時、世界各国から韓国の仁川に嫁いできた’仁川のお嫁さん’たちが、中区栗木洞に集う。栗木洞にある移住民社会統合支援センター(以下センター)は結婚移民者と外国人労働者、その子女たち、同胞など、韓国に移住してきた彼らが、この地にできる限り早く適応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ところだ。彼らにとって最も必要なのは、言語と文化の理解だ。センターは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午前10時から2時間、ハングルと韓国文化に対する教育を行っている。

30人から40人程度の’仁川のお嫁さん’たちが、毎日子供の手を引いて勉強をしにやってくる。同じ国の出身である’先輩’の先生から授業を受けることができ、理解も簡単で何よりも力になりかつ刺激にもなる。授業を受けている間、子供たちはセンターの内部に設けられた保育所で、友達と遊べ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心配ない。センターの授業が良い理由はまだある。一緒に食べるお昼ごはん。センターでは、毎日ご飯を炊き、おかずを作ってみんなで分けあって食べている。大したごちそうではないが、配慮と心のこもった食卓で仁川のお嫁さんたち、そしてその子どもたちは韓国の情を学び味わっている。

食事後、いく人かはそのまま残り補充授業を受けたり、韓国語の勉強に情熱を注ぐ。時々図書館への見学、エバーランド見学、正月のお雑煮の分け合い、お盆のソンピョン作り、キムジャンなど楽しくて新しい韓国の日常と伝統を体験。’世界人の日’、’アジア人の日’のような祭りは故郷に対する懐かしさをしばらく慰める時間でもある。

昨年1年間、センターを経た受講生は計552人。教育後、各分野に就職したり、通・翻訳専門家過程を経た後、仕事につ



いた人も少なくない。支援は教育だけではなく相談も受けている。これまでの1年間、苦情相談件数、8,239件。賃金未払い、産業災害、死亡など、また労働問題、住宅保証金、交通事故、債権債務関係や詐欺、暴行、性的暴行などの刑事問題、結婚、離婚、子女教育などの生活関連問題と出入国関連問題など、多種多様なタイプの被害と犯罪ギルコ苦情に耳を傾け、最後まで支援している。

家庭暴力被害、疾病や災害など、困難にある彼らにとって、切実な仮の住まい’幸せナムド’も運営。センターは韓国の配偶者に外国文化、および基礎言語を教育し、多文化関連実務者、運営委員、ボランティアを対象に多文化社会への理解教育を実施。移住民たちが韓国を学ぶことも重要だが、韓国社会が多文化に対する認識を高めていくことなしには対立は絶えまなく発生するからだ。

”単純な保護と、無条件的な援助ではなく、不当な待遇を受けず、堂々と自立できる現実的な支援こそ、健全な多文化社会へ歩む道”と言う、移住民社会統合センターのソグワンソクセンター長。すでに’多文化’は全世界的にみて自然な

現象。違うという認識、そして差別が消えさるなら、’多文化’という単語も消えてしまわないだろうか。センターはその日まで移住民たちと、ご飯を食べながら彼らの話に耳を傾け、共に調和していくことだろう。

매일 아침 10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인천으로 시집 온 ‘인천댁’들이 중구 율목동에 모인다. 율목동에 있는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그 자녀들, 동포 등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들이 이 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한다.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인천댁’들이 매일 아이의 손을 잡고 공부를 하러 온다. 같은 나라 출신의 ‘선배’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으니 이해도 쉽고 무엇보다 힘을 얻고 자극이 된다. 수업을 받는 동안 아이들은 센터 한쪽에 마련된 놀이방에서 친구들과 놀면 되니 걱정 없다. 센터에서는 매일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

어 다같이 나눠 먹는다. 화려하진 않지만 배려와 정성이 담긴 식탁에서 인천댁과 아이들은 한국의 정을 배우고 맛본다.

지난 한 해 동안 센터를 거쳐 간 수강생은 총 552명. 교육 후 각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통·번역전문가 과정을 거친 후 일을 맡은 이도 적지 않다.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년 간, 고충 상담 건수가 8,239건. 노동문제, 채권채무 관계나 형사문제 등 생활 관련 문제와 출입국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와 범죄에 귀 기울여 마무리까지 돕는다.

가정폭력 피해, 질병과 재해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절실한 임시 거처인 ‘행복 나눔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한국 배우자에게 외국 문화 및 기초 언어를 교육하고 다문화 관련 실무자, 운영위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보호와 무조건적인 도움의 손길이 아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건전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주민사회통합센터의 서광석 센터장. 이제 ‘다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르다는 인식과 차별이 사라진다면 ‘다문화’라는 단어도 사라지지 않을까. 센터는 그날까지 이주민들과 밥을 지어먹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어울릴 것이다.

移住民社会統合支援センター—外国人総合相談所
이주민 사회통합지원센터—외국인 종합상담소
● 住所: 仁川市中区栗木洞1-33漢城ビル4F
인천시 중구 율목동 1-33 한성빌딩 4F
● 電話: 032-773-0909
● ホームページ: www.msisc.co.kr

글·사진 주 만 기자
—저널리스트(주란) 記者 rri0217@naver.com

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민속촌 체험, 가평 산내들 체험마을, 임진각 체험, 임실치즈마을 등이다.

南洞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芸術の殿堂の公演映像画事業部と協力し、5月 28日(水) 午後 6時から ‘胡桃割り人形’ 録画公演を、仁川cgvで観覧した。この度の公演は、バレエ公演を生き生きと、大型スクリーンを通し、現場そのままの生動感を伝えた。多文化家族9家族23名が参加した。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 사업부와 협력하여 5월 28일(수) 오후 6시부터 호두까기인형 녹화공연을 인천cgv에서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발레공연을 생생하게 대형스크린을 통해 현장감 그대로 생동감

있게 전달됐다. 다문화가족 9가족_23명이 참여했다.

富平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北区図書館と共に、キッズ英語童話リーディング ‘みんないっしょに読もう!’ の授業を開講。この教育は、世界各国の多様な文化と英語のリーディングの授業を並行した教育で、6歳～8歳の多文化子女の12名が参加した。授業は、6月 7日から7月 26日まで、毎週 土曜日 総8回期の間 行われる予定だ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북구도서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동화읽기 ‘우리 함께 읽어요!’ 수업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영어읽기 수업을 병행하는 교육으로 6세~8세 다문화 자녀 12명이 참여한다. 수업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 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기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西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5月10日, 24日、多文化家族 5世帯を対象に家族体験、および教育の一環として ‘幸福 The Dream 家族週末農場’ プログラムを運営。2月 22日から 11月 22日まで 毎月 第2, 第4週目の土曜日に進行される、このプログラムは、家庭菜園の札作りオリエンテーションを幕開けに、家庭菜園を手入れていく基礎理論教育と、実践導入の過程を経て、家族がともに家庭菜園を耕し育てる体験活動を進めている。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10일, 24일에 다문화가족 5세대를 대상으로 가족체험 및 교육의 일환인 ‘행복 The Dream 가족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텃밭 팻말 만들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텃밭 가꾸기 기초 이론 교육과 실전 도입 과정을 거쳐 가족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가꾸는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江華郡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金泉法文化センターで6月18日, 19日 1泊2日の日程で多文化家族たちが、必ず知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家族法、及び相続法などの生活と密着した法律知識を伝え、家族間の和合を意図するキャンプを行った。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천법문화센터에서 6월 18일, 19일 1박2일 일정으로 다문화가족들이 꼭 알아야하는 가족법 및 상속법 등 생활 밀착형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캠프를 진행했다.

病院の救急室利用について

병원 응급실 이용하기

健康保険に加入すれば、色々な支援が受けられる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여러 혜택 볼 수 있어

バカンスの季節、休暇の計画に心はウキウキし始める。甘い休暇を夢見る皆さん、万一の事故の備えは大丈夫？夏は少しの油断も危険な事故につながりかねない。夏には、特に混雑する応急室の利用方法も、あらかじめ熟知しておこう。

病院の診療時間が終わった夕方や週末に、大きな事故に見舞われたり、急に体の調子が悪くなった場合、救急室を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夜間119救急車が向かう所がまさに応急室。救急治療室は、病院の診療時間とは関係なく、年中無休の24時間運営。もしも救急室を利用する状況に置かれたら、慌てず手続きを踏まえ、速やか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番先に院務科で診療の受付をし、勤務(当直医師が予診。予診の結果によって専門医が応急手当てにあたり、症状に応じた適切な治療と処方を受けた後、手術、入院、退院などが決められる。一つ参考すべき点は、応急室は受付順がなく、患者の‘応急’状態によって、診療順位が決まるということ。)

移住民女性の リ ウイ(중국, Liwei/李瑋)さんは、“以前ひどい体調不良で、救急室を利用し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その時大きな病院の応急室は、応急患者が多くて、待ち時間がとっても長かったんです。”と言い、“簡単な症状の場合には、薬局を訪ねるのも役にたつこともありますよ。”と伝えた。

一刻を争う応急室で、診療費がなく治療を受けられない状況が生じたらどうしよ

う？韓国ではこのような状況に備え、‘救急医療費 デブル制度’を運営。‘救急医療費 デブル制度’は、国家が応急医療費を代わりに負担した後、患者がその費用を返済する制度だ。利用方法は簡単。救急室の院務科で患者の身分を明らかにし、救急医療費 デブル制度を申請すればよい。診療費の分割納付は、最長12ヶ月まで可能。

移住労働者ブラディブ(ネパール. PRADIP)さんは、“このような制度があったのを初めて聞きました。急な状況に、制度をうまく活用すれば支援が受けられるという事に安心しました。外国人でも健康保険に加入さえしていれば、この制度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事も初めて知りました。”と述べた。

바캉스의 계절, 휴가 계획에 마음이 들르기 시작한다. 달콤한 휴가를 꿈꾸는 당신, 만약의 사고에 대비는 하고 있는가. 여름엔 잠깐의 방심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름이면 특히나 봄비는 응급실 이용 방법도 미리 숙지해두자.

병원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이나 주말에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늦은 저녁 119구급차가 향하는 곳도 바로 응급실이다. 응급실은 병원진료시간과 상관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만일 응급실을 이용할 상황에 놓인다면, 당황하지 말고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장 먼저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 근무(당직)의사가 예진을 진행한다. 예진 결과에 따라 전문의가 응급치료를 하게 되고,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받은 뒤에는 수술, 입원, 퇴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응급실은 접수 순서가 아닌 환자의 ‘응급’ 상태에 따라 진료 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주민 여성 리위(중국)씨는 “예전에 심한 몸살로 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 그때 큰 병원 응급실을 찾았더니 응급 환자가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하며 “간단한 증상일 경우에는 약국을 방문하는 것도 도움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촉각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응



급 의료비 대불제도’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환자가 그 비용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응급실 원무과에서 환자의 신분을 밝히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주 노동자 프라딕(네팔)씨는 “이런 제도

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다. 위급한 상황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다. 외국인이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어있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 -챌로즈군(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박스 / 토막정보

‘外国人なのでもっと高くないかな?’ ‘외국인이라서 더 비싸지 않을까?’

診療費の負担が大きい応急室は、心配が先立つ。しかし、あらかじめ健康保険や労災保険に加入しておけば安心。このような保険は、応急室を含む、すべての病院医院で医療費の保障が可能だ。外国人の場合、留学及び就職、結婚移民、居住等の目的を持った人なら、健康保険加入が可能。外国人の健康保険加入は、入国後 3ヶ月が経過した後には可能であり、具備書類を持参し、国民健康保険公団(<http://www.nhis.or.kr>)を通し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留学や就職を目的に入国した外国人は、入国当日に申請可能。

応急室に行くほどではない軽い症状の場合には、当番制で夜間にも運営している市内の‘当番薬局’への訪問がおすすめ。当番薬局情報はwww.pharm114.or.kr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진료비 부담이 큰 응급실은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미리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안심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들은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의료비 혜택을 보장한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 및 취업, 결혼이민, 거주 등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당일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야간에도 운영하는 시내의 ‘당번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당번약국 정보는 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ブラディブ(左)氏と リウイ(右)氏が 応急室の前で ポーズをとっている。
프라딕(좌)씨와 리위(우)씨가 응급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ゴミを捨てる方法は、別にある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

生活ゴミの出し方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卵の殻はゴミか、でなければ生活ゴミなのだろうか？

大きな家具はどうやって捨てるべきではないのだろうか？ ゴミをきちんと捨てるだけでも資源の無駄遣いを防ぎ、環境問題を改善する助けとなる。韓国人もよく見分けがつかないゴミの出し方。正確に知り、'きちんと捨てる'習慣をつけ、賢い文化市民になろう。

家庭から排出されるゴミは、大きくわけ、生活ゴミ、残飯、リサイクルゴミ、廃棄物に分けられる。一般的に最もたくさん捨てられる生活ゴミは、従量制袋に入れて捨てる。食べ物とリサイクルごみを除いたすべてのゴミが生活ゴミに該当する。

生活ゴミの次に、多いのが生ゴミ、水気と異物を最大限除去した後、食べ物専用の従量制ゴミ袋に入れ結んで出す。食べ物のゴミの70%以上を占める水分は、ゴミの悪臭を誘発する主な原因。水分を最大限に減らすと、周辺環境を清潔に保ち、またゴミの量も減り、従量制ゴミ袋を節約することができる。

プラスチック、段ボール、缶、ガラス瓶

など、リサイクルが可能なすべてのゴミは、リサイクルゴミとされる。リサイクルゴミは異物を除去した後、(半)透明ビニール袋に入れ排出。もし、異物が付いた状態で出したり、不透明な袋に入れて出した場合は、回収されないで、正確な方法に従って捨てるなければならない。アパートのような共同住宅では、独自に別々の収集箱が設置されているので、それに従って捨てること。

家具のような廃棄物は、廃棄物ステッカーを付着して、捨てるべきではない。ステッカーは、各区庁のホームページや住民センターで購入することができる。

従量制のゴミ袋は、近くのスーパーやコンビニ、スーパーで販売。ゴミをむやみに捨てたり、分離収去をしない場合には、1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科せられる。すべてのゴミは居住地域の出す曜日に合わせて出さなければならず、排出日は、各地域の洞事務所ホームページ、生活情報欄で確認できる

계란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일까, 생활쓰레기일까? 커다란 가구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 걸까?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것만으로도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한국인도 곧잘 헛갈리는 쓰레기 배출방법. 정확히 알고 '잘 버리는' 습관으로 똑똑한 문화시민이 되어보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크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폐기물쓰레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음식물과 재활용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에 해당한다.

생활쓰레기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を 최대한 제거한 뒤 음식물 전용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한다. 음식물쓰레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은 쓰레기의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수분을 최대한 줄이면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할 수 있고, 쓰레기양도 줄어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다.

플라스틱, 종이박스, 캔, 유리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로 구분된다. 재활용쓰레기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만약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배출하거나, 불투명한 봉

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수거가 되지 않으니 정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

가구 같은 폐기물쓰레기는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 버려야 한다. 스티커는 각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쓰레기는 거주 지역 배출요일에 맞춰 배출해야 하고, 배출일은 각 지역 동사무소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챌로쥔(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생ゴミ? 生活ゴミ!間違えないでください〜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헛갈리지 마세요〜

- 野菜類** : ワケギ・大ネギ、セリの根、トウガラシの種、唐辛子の茎、玉ねぎの皮、乾いたニンニク茎の皮、トウモロコシの茎や皮

果物類、堅果類 : クルミ・栗などの殻、桃・アプリコットなどの核果類の種

肉類 : 牛・豚など大きな骨

魚介類 : 貝・サザエ・アワビ・ハイガイ・カキなど、貝類の殻やカニ・ジャコなどの甲殻類の殻

動物の卵(皮) : 卵・ウズラの卵などの殻

1回用パック : 1回用パック : 紙・布で包装された、1回用の緑茶など

その他 : ビニール、爪楊枝、割り箸など
- 채소류** : 쪽파 · 대파, 미나리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껍질, 마른 마늘대의 껍질, 옥수숫대와 껍질

과일류, 견과류 : 호두 · 밤 등의 껍데기, 복숭아 · 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육류 : 소 · 돼지 등 큰 뼈다귀

어패류 : 조개 · 소라 · 전복 · 꼬막 · 굴 등 패류껍데기, 게 ·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동물의 알(껍질) : 달걀 · 메추리알 등 껍데기

1회용 티백 : 종이 · 형검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기타 : 비닐,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

真っ赤に染まったインドの味, タンドリーチキン

빨갛게 물든 인도의 맛, 탄두리 치킨



が、このタンドリーチキン。行事の日には、野外でタンドリーチキンを作る男性たちを簡単に目にすることができる。作業時間が非常に長く、退屈なため、大勢の人たちが集まって料理をするからだ。彼らは、ウィスキーやインドの伝統酒を飲みながら、料理の時間をパーティーへと昇華する。彼ら特有のアパタイパーパーティーを楽しむわけだ。作り立ての熱々のタンドリーチキンは、彼らの最高のつまみとなる。

プレーンヨーグルトとチリパウダー、各種 香辛料で真っ赤に薬味したチキンをインド式伝統のかまど ‘タンドリー’ で均等に焼いていき、油っぽさが抜け、しっとりとしたタンドリーチキンができあがる。チキンの骨を取り除き、身だけで料理したものを ‘タンドリー ティカ’ という。その昔、現代化の波にのり、多く

タンドリーチキンの真っ赤な味付けが、手と口の周りを染めるにつれインドの味は強力になっていく。宗教的色彩の濃い菜食中心の食事をするインド人ではあるが、チキンは彼らからも愛される食材。特にパンジャブ地方の伝統料理、タンドリーチキンは、インドの全地域で人気が高い。

祝祭や結婚式のような特別な日に、インドの食卓に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の

のインド人がイギリスに移民した。海外で最初にできたインド飲食店がイギリスに位置するのこのためだ。英国内で脚光を浴びたインド料理店は、世界の各国にひろまっていた。タンドリーチキンは、いつのまにか全世界の人たちを魅了するインドの代表料理として定着している。

탄두리 치킨의 빨간 양념이 손과 입가를 물들일수록, 인도의 맛은 강렬해진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인도인이지만 그들에게도 치킨은 사랑받는 음식재료다. 특히 편자브 지방의 전통 음식인 탄두리 치킨은 인도 전역에서 인기가 높다.

축제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인도의 식탁엔 탄두리 치킨이 빠지지 않는다. 행사 날이면 야외에서 탄두리 치킨을 만드는 남자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작업시간이 길고 지루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스키나 인도 전통 술을 마시며 요리하는 시간을 파티로 승화시킨다. 그들만의 에피타이저 파티를 즐기는 것이다. 방금 만든 따끈한 탄두리 치킨은 그들의 좋은 안주가 된다.

플레인 요거트와 칠리 파우더, 각종 향신료로 붉게 양념을 한 치킨을 인도식 전통 화덕 ‘탄두리’에서 골고루 익혀내면, 기름기는 쏙 빠지고 촉촉한 탄두리 치킨이 완성된다. 치킨의 뼈를 발라내고 살만으로 요리한 것은 ‘탄두리 티카’라고 한다. 현대화의 물결을 타고 많은 인도인이 영국으로 향했다. 해외 최초로 생긴 인도음식점이 영국에 위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 내에서도 유명세를 떨친 인도식당은 세계 각 국으로 퍼져나갔고, 탄두리 치킨은 어느새 전 세계인을 매료시킨 인도의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챌로쥔(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食べ物で味わう多文化

米国式のお膳立て'フォッグ・シティ' キムヒョンスン氏

미국식 밥상을 차린다 '포그시티' 김현순 씨

“多文化家族で生きてくって、容易じゃないんですよ” “다문화가족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フォッグ・シティの自慢は手作りパン

フォッグ・シティは、中区のデブルホテルの敷地の前にある。自由公園を屏風に、海を見下ろす仁川広域市中区 新浦路 23番地 102にフォッグ・シティの看板が掛かっている。香ばしいパンの香りは、レストランのガラス戸のすきまをかきわけ、道端にまで溢れている。伝統の手作りパンで有名なこの店の味を、すでに知っている人たちの間では有名だ。全粒粉を直接製粉し、色々な材料で味を生かしたピザと、米国ワイン、ステーキ、手作りジャムなど、一度味わった人ならすぐに常連となる。

キムヒョンスン氏がエプロンをかけて、お客さんたちにパンを出す。毎日明け方、夫のボブ氏が工房で一人で真心を込めて作ったパン。一日も欠かさず、夫が作り出すパンで、お客さんたちを持て成す彼女は、夫に感謝し、おいしく食べてくれるお客さんに心より感謝している。

パンを作り始めたのは、夫のボブさんが韓国に来て、本人の口に合うパンがなかったことから。カリフォルニアとは気候と環境が異なり、最初はパンを完成させるのにとても苦労した。3年間の失敗を重ねながらも、生酵素を生かそうと努力した。ついに2007年に始まったボブおじさんのパンは、生酵素とともに、伝統の米国式パンとなって完成。もう彼のパンは、名匠と専門家たちから好評を得る'名品パン'となった。カリフォルニア州レーズンベーカーの新製品コンテストにより、2013年に続き2014年にも大賞とアイデア賞を受賞している。

キムヒョンスンさんは、夫のパンについて大きな自負心を持っている。“この国でも、ご飯屋に行って、ご飯の味が良ければ、他の料理もおいしいように、米国もまた食べ物の味の基本はパンなんです。こ

のパンは夫の努力と真心がたっぷりこもった健康食なんです。”

포그시티의 자랑은 수제 빵

포그시티는 중구 대불호텔 터 앞에 있다. 자유공원을 병풍삼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102에 포그시티의 간판이 걸렸다. 구수한 빵 냄새가 레스토랑 유리 문틈을 비집고 길가로 스며 나온다. 전통 수제 빵으로 유명한 이 집의 음식 맛은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만큼 유명하다. 통밀을 직접 제분해 다양한 재료로 맛을 살린 피자과 미국 와인, 스테이크, 수제 잼 등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이내 단골이 된다.

김현순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빵을 내어 놓는다. 매일 새벽, 남편 밥 씨가 공방에서 홀로 정성을 들여 만든 빵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이 만들어 낸 빵을 손님에게 건네는 그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 손님에게 감사하다.

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남편 밥 씨가 한국에 와서 본인 입에 맞는 빵이 없어서다. 캘리포니아 기후와 환경이 달라 처음엔 빵을 완성하는데 고생을 했다. 3년 동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생효소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2007년 시작된 밥아저씨의 빵은 생효소와 함께 전통 미국식 빵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그의 빵은 명장과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명품 빵'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레이즌 베이커 신제품 콘테스트에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대상과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김현순 씨는 남편 빵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도 밥집에 가면 밥맛이 좋아야 다른 음식도 맛있듯 미국 역시 음식 맛의 기본은 빵이에요. 이 빵은 남편의 노력과 정성이 듬뿍 담긴 건강 음식입니다.”

アメリカの食べ物を韓国に伝えたい

ソウルの某病院の院務科に勤務していたキムヒョンスンさんは、韓国に出張に来ていたボブ(サンフランシスコ連邦政府銀行の情報補完パート勤務)さんに、友達夫婦の紹介で知り会った。もちろん家での反対は相当だっ

た。24歳で、彼女は愛を選び、ボブさんに連れ添い是非も知らず、サンフランシスコへ。1987年12月31日、婚姻届を先にすませ、結婚式は1988年3月5日に挙げた。

彼女は初めての米国だったが怖くなかった。“その当時、映画 ‘ホーム・アローン(Home Alone)’が人気絶頂だったんです。それで映画で見ていた米国が、馴染めなくはなかったんです。”

ボブさんが住んでいた町はとてもきれいだっ。夫の両親も暖かく迎えてくれ、本当に不便なく暮らせた。32歳の時、米国の専門大学課程で英文学を専攻。なんの心配もなく、20年を越え米国で生活できた。そのころ、夫の退職後を考え韓国行きを決心。今から12年前の韓国では、あまりワインを見かけることがなかった。それで彼女と夫は、米国のいいワインを、韓国に紹介する仕事を企画。その後、彼女は米国でソムリエの勉強をした。そして米国からワインを韓国に送ると、まずどこに到着するのかを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したところ、そこが仁川だった。そのため仁川に倉庫を用意した。後で分かったことだが、仁川到着ではなく釜山だったとのこと。しかしこれも運命だろうと、仁川に定着した。

“私がソムリエの勉強をしたころには、ソムリエは2人しかいなかったですよ。それが韓国に来てみると、あなたもわたしもみんなソムリエになってたんです。”彼女は笑った。

ワインで勝負するには、韓国での老後設計としてどこかまだ足りないようだった、それで始めたのが、レストラン ‘フォッグ・シティ’。2009年4月15日。いつの間にか、満5年の月日が過ぎた。



フォッグ・シティ レストランの家族たち(左側から次男のダニエル、夫のボブ、キムヒョンスンさん、長男ルッビック(ローヴァーズ))
포그시티 레스토랑의 가족들(좌측부터 작은 아들 다니엘, 남편 밥, 김현순 씨, 큰 아들 로버트)

ごはん汁の代わりにパンとスープが出てくる、フォッグ・シティ(fogcity)は、米国式お膳立てレストラン。私たちのことばで表現するなら、米国式定食屋さん。このアメリカの本土式お膳立てを準備してくれるのは、サンフランシスコから渡ってきた、ボブ(Bob)おじさんと、彼の妻キムヒョンスンさん。キムさんは米国人の夫、そして2人の息子と、ここ仁川に暮している。

밥과 국 대신 빵과 스프를 내놓은 포그시티(Fog City)는 미국식 밥상을 차리는 레스토랑이다. 우리네로 얘기한다면 미국식 백반집이다. 미국 본토식 밥상을 차리는 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건너온 밥(Bob) 아저씨와 그의 아내 김현순 씨다. 김 씨는 미국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인천에 살고 있다.

韓国適応は、思うように容易ではなかった。韓国式の味に手なずけられたお客さんたちを、米国の伝統料理では簡単につ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トマトパスタにケチャップを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クリームパスタはしょっぱくて脂っこく’など。お客さんたちはそんな注文をしてきた。しかし、ボブおじさんは、決してそうはしなかった。そのために2年半の間は、よく夫婦げんかに繋がった。結婚して一度も争ったことのなかった夫婦だったが、そのために深刻に喧嘩もした。

“お客さんたちの口に合わせてみたらどう。これじゃつぶれちゃうわ。” “つぶれてもいい。僕たちの方式で行こう。韓国の人たちが望むままにしておいては、健康に良くない。アメリカの食べ物をきちんと紹介するために来たんだったらこのままでやっていこう。”

結局、ボブさんの意地が勝った。今では、正統のアメリカン料理を食べるために、わざわざ訪れる人たちが徐々に増えている。米国での勉強を終えた2人の息子も、韓国に来ていっしょに暮らしはじめた。2人の息子は、子供たちに英語を教えながらレストランで両親を助けている。2



人の息子のおかげで、たまに夫と一緒に余裕を取り戻せるようになった。暇を作っては、公園を散歩したりしている。

“散歩していると、すれ違う人たちが好奇心旺盛な目で見たりするんですよ。あの視線のようにまだ韓国での多文化生活って、なかなか甘くないんですよ。絶対。”

生まれ育った四季のある韓国で、情深い人たちと一緒に生活することに彼女はとても満足している。しかし、たまに彼女は、米サンフランシスコが恋しくなることもある。幸い中区は、サンフランシスコで暮らしていたところと、とてもよく似ている。薄い霧に包まれた埠頭。旅客船と漁船が海岸道路を分ける港街、サンフランシスコと仁川。2つの都市は、香ばしいソンの香りでいっぱい。’フォッグ・シティ’で毎日結ばれている。

미국 음식을 한국에 전하고 싶어

서울의 모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김현순 씨는 한국으로 출장 온 밥(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은행 정보보안 파트 근무) 씨를 친구 남편의 소개로 만났다. 물론 집에서의 반대는 심했다. 24살에 그녀는 사랑을 찾기 위해 밥 씨를 따라 무작정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1987년 12월 31일 혼인신고 먼저하고 결혼식은 1988년 3월 5일에 올렸다.

그녀는 처음 가는 미국이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 당시 영화 ‘나홀로 집’이 한창 유명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영화로 본 미국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밥 씨가 사는 마을은 너무 예뻐다. 시부모님들도 잘해주셔서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었다. 32살 땀 미국에서 전문대 과정으로 영문

학 전공도 했다. 아무 걱정 없이 20년 좀 넘게 미국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퇴직 후를 생각하면서 한국행을 결심했다. 12년 전만 해도 한국은 와인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와 남편은 좋은 미국와인을 한국에 소개시키는 일을 해보기로 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소믈리에 공부를 했다. 미국에서 와인을 한국에 보내면 어디에 먼저 도착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인천이었다. 그래서 인천에 창고를 얻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 도착이 아니고 부산이었다. 운명이라니 하고 그냥 인천에 정착했다.

“내가 소믈리에 공부할 때는 소믈리에에는 2명밖에 못 만났는데 한국에 와보니 너도나도 다 소믈리에였어요.” 그녀가 웃는다.

와인으로 승부하기엔 한국에서의 노후 설계가 어딘지 부족할 듯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레스토랑 ‘포그시티’다. 2009년 4월 15일이다. 어느새 만 5년이 지났다.

한국 적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한국 식 입맛에 길들여 진 손님들에게 미국 정통 음식은 쉽게 끌리지 않았다. ‘토마토 파스타에다 케첩을 넣어야 한다’, ‘크림 파스타는 짜고 느끼하게’라는 등등. 손님들은 그렇게 주문을 했다. 그러나 밥 아저씨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2년 반 동안은 곧잘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던 부부였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기도 했다.

“그냥 손님들 입맛에 맞추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망해도 된다. 우리식대로 가자. 한국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건강에 안 좋다. 미국 음식을 제대로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왔으면 그대로 하자.”



결국 밥 씨의 고집이 이겼다. 이제는 정통 미국식 음식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두 아들도 한국으로 와서 살림을 합쳤다. 두 아들은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며 레스토랑에서 엄마와 아빠를 돕는다. 두 아들의 도움 덕분에 남편과 함께 가끔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짬을 내 공원 산책도 한다.

“산책하다보면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해요. 그 시선처럼 아직도 한국에서의 다문화 삶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절대...”

태어나서 자란,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정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그녀는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그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그리운다. 다행히 중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던 곳과 너무 흡사하다. 열은 안개에 휩싸인 자옥한 부두. 여객선과 어선이 바닷길을 가르는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와 인천. 두 도시는 고소한 빵 냄새가 나는 ‘포그 시티’에서 매일 이어진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 키로민쮸(김민영)編集長□
gem0701@hanmail.net



伝統受け継ぐ仁川の手/螺鈿漆器(らでんしっき)

アワビの殻の華やかな変身 ‘螺鈿漆器’

전복껍질의 화려한 변신 ‘나전 칠기’

螺鈿漆器は、韓国特有の伝統工芸だ。海の深い波に数万回揺れ動かされ、美しくつくられたアワビの殻を材料に、幻想的な虹色の光をなす作品として完成。螺鈿漆器は、多様な模様になぞられたアワビの殻を、枠にあて切り取り、貼付け、何度か漆塗り(漆の樹液)をして完成させていく。

漆塗りををはがすことを繰り返す等、およそ28回を越える工程を経た後、やっと光が発散される螺鈿漆器、その昔、手にしたいと思って誰も持てた物ではなかった。過去には、王族と高官大爵たちだけが家に入れることができ、その高貴さを物語っていた。また、時代の変化とともに大金持ちの自慢の品となっていく。1970~80年代までは、螺鈿飾(らでんかざり)のタンスひとつ値段が、普通の一軒家より高かった。

青貝は、まさに螺鈿を意味している。螺鈿は高麗時代、漆器技法により完成された。現在まで、最高の技法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漆塗りは、螺鈿漆器の生命だ。漆器は、西洋では見ることでしかない東洋特有の工芸品である。

나전칠기는 한국 특유의 전통공예다. 바다의 깊은 물결이 수만 번 일렁이며 아름답게 빛나는 전복껍질을 재료로 무지개 빛 환상이 작품으로 완성된다. 나전칠기는 다양한 모양으로 다듬어진 전복껍질을 틀에 오려 붙이고 수차례의 옷칠(오투액)로 견고해진다.

옷칠을 벗겨내기를 반복하는 등 28여 공정을 거친 뒤에야 빛을 발산하는 나전칠기는 갖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과거 왕족과 고관대작들만이 집안에 들여놓아 그 고귀함을 더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갑부들의 호사품이 되기도 했다. 1970~80년대만 해도 자개장 하나가 어지간한 집 한 채 값보다 비쌌다.

자개는 곧 나전을 뜻한다. 나전은 고려시대 칠기의 기법으로 완성됐다. 현재까지 최고의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옷칠은 나전칠기의 생명이다. 칠기는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동양 특유의 공예품이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 키로민쮸(김민영)編集長□gem0701@hanmail.net

見る度に新しい ‘月尾島 文化の街’ 볼 때마다 새로운 ‘월미문화의 거리’



月尾島は、仁川中区北城洞に位置する仁川でいちばん美しい、是非足をはこんでほしい休養地だ。ここは老若男女だれもが分け隔てなく、皆いっしょに楽しめる所としても有名だ。昼も良いが夜間がより艶やかな月尾島の文化街は、恋人たち

にも特に人気が高い。勤務を終え涼しい潮風とともに余裕をさがしに多文化の人々もここに好んでやって来る。最近のように天気の良い時には、月尾島の文化街は大勢の人たちで賑う。この通りを歩いていると、多くの人たちが

幸せで安らかな時間を過ごしている姿を目にするが、それはまさに幸福そのものだ。見ている記者もまた、うれしく幸せを感じる時間となり、とても気分が良い。様々な行事と音楽がやむことをしらない場所、情熱的な人たちが集う月尾島の文化街には、色々な食べ物と遊びがあり、これまた楽しい。夜に、より輝く光のウォーター・ダンシングの噴水は、非常に人気がある。月尾島は、一口で言うと自然と情熱的で多様な人たち、そして多様な催し物で溢れる、是非一度行ってみるべき観光地だ。何度行っても新しい月尾島へ家族と友だち、そして恋人といっしょに行かれることをお勧めする。

월미도는 인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해 있는 인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볼만한 휴양지다.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든,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낮도 좋지만 야경이 더욱 화려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연인들에게도 특히 인기

가 높다. 근무를 마치고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여유를 찾으려는 다문화 친구들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 지금처럼 날씨가 좋을 때,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사람들로 더욱 더 붐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다. 보는 기자 또한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니 기분이 좋다. 다양한 행사와 음악이 끊이지 않는 장소로 열정적인 사람들 많이 모이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 더 즐겁다. 밤에 더욱 빛나는 불빛 워터 댄싱 분수대는 인기가 많다. 월미도는 한마디로 자연과 열정적인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득해 꼭 한번 가 봐야 할 관광지이다. 가도 가도 새로운 월미도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가보길 추천한다.

김민준(Razzu·네팔) 객원기자
키오 민진준 (Razzu·네팔) 客員記者
gookim7@naver.com

ぴりっとした無限スリルを楽しめる月尾テーマパーク海を見ながらスリルを楽しむ

月尾テーマパークでは、20余種の乗り物をはじめ、キッズワールド(子供の遊び体験館)、4D映像館などが設置されている。全国で最も刺激的でスリルのあるバイキングと呼ばれている月尾島バイキングに乗ると、海と空が交互に目の前に現れめまいがおきてしまうほど。ここは、‘生活の達人’、‘幸福発電所’、‘スタッキン(스타킹)’、‘私たち結婚しました’など、多様なTV番組の撮影地としても有名。

짜릿한 무한 스릴을 즐긴다. 월미테마파크

바다를 보며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월미테마파크에는 20여종의 놀이기구를 비롯해 키즈월드(어린이 놀이체험관), 4D영상관 등이 설치돼 있다. 전국에서 가장 짜릿한 바이킹으로 소문 나있는 월미도 바이킹을 타면 바다와 하늘이 번갈아 가며 눈앞에 아찔하게 펼쳐진다. 이곳은 ‘생활의 달인’과 ‘행복발전소’, ‘스타킹’, ‘우리 결혼했어요’ 등 다양한 TV프로그램 촬영지로 유명하다.

海とともに休息する月尾島の親水空間

海を体で感じられる空間。ごつごつとした岩の塊と、赤いミニ灯台が立っている親水空間へ降りていくと、海がより一層近寄ってくる感じ。足を伸ばして岩の上に座り、涼しい潮風にあたりながら、沖合をまるで滑っているかのように浮ぶ遊覧

船や、宗島と月尾島を行き来するフェリー号をゆったりと眺めることができる。

바다와 함께 휴식하다. 월미도 친수공간

바다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울퉁불퉁한 바위덩어리와 빨간 꼬마 등대가 서있는 친수공간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다리 쪽 뻗고 바위 위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 쐬면서 앞바다를 미끄러지듯 떠다니는 유람선과 영종도와 월미도를 오가는 페리호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大韓民国 移民歴史 出發地 韓国移民史 博物館

大韓民国の移民の歴史が公式的に始まったところは、仁川だ。2003年、移民100周年を迎え、それを記念するために、わが国で最初の移民出発地であった地に移民史博物館を開館した。1902年12月ハワイ初の移民団121名が済物浦港から船出し、未知の世界に出発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移民者たちの起伏に富んだ歴史が紹介されている。

대한민국 이민역사의 출발지 한국이민사박물관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곳은 인천이다. 2003년 이민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 출발지였던 곳에 이민사박물관을 개관했다. 1902년 12월 하와이 첫 이민단 121명이 제물포항에서 짐을 챙겨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했던 이민자들의 굴곡진 역사를 담고 있다.



Only One UCC 公募展 開催

온리원 UCC 공모전 개최

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組織委員会は、仁川アシアードソング’オンリーワン(OnlyOne)’をテーマに、UCCの公募展を開催。仁川アジアゲームの開幕を控え、世界的な関心と参加ムードづくりのために、施行される公募展は、応募、投票、結果の発表など、すべての過程が公式SNSチャンネルを通じて行われる。内・外国人区分なく、3人以上で構成されたチームなら誰でも参加することができ、仁川アジアゲームの広報大使JYJが歌っているオンリーワンの振り付けをもとに、個性のある創作ダンス応募すればよい。6月23日から7月20日までeメール(iagoc@incheon2014.kr)で受付。審査とオンライン投票を通じ、8つの受賞チームを選定、大賞の1チームには、5,000ドル、他の7チームには、総額9,000ドルの賞金が与えられる予定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인천아시아드송 ‘온리원(Only One)’을 주제로 UCC공모전을 개최한다.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공모전은 응모, 투표, 결과 발표 등의 모든 과정이 공식 SNS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대사 JYJ가 부른 온리원 안무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창작댄스를 응모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메일(iagoc@incheon2014.kr)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8개의 수상팀을 선정해, 대상 1팀에게는 5000달러, 7팀에게는 총 9000달러의 상금이 나뉘어 지급할 예정이다.

2014인쵸ンAG 스마트 토치 릴레이 施行

2014 인천 AG 스마트 토치 릴레이 시행

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組織委員会は、歴代アジアゲーム初の、スマート機器を活用した聖火奉送イベント、‘スマートトーチ・リレー’を施行。スマートトーチ・リレーは、最先端 IT アジアゲームを標榜した、組織委員会が掲げる大会の目標に合致するコンテンツとして、OCA(アジアオリンピック評議会)の承認を受けた公式プログラムだ。これを通して全世界が簡単に楽しく、オンラインの聖火リレーに参加できる。スマートトーチ・リレーアプリは、韓国語、英語、日本語、中国語で提供され、フェイスブック、ツイッター、カカオトーク、ライン、微博、微信などのSNSを通じ、知人たちに伝達される計画だ。また、スマート機器間の近距離無線通信

(NFC)機能を利用した点火も可能である。アプリは、アンドロイド’グーグルプレー’からダウンロード可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성화봉송 이벤트 ‘스마트 토치 릴레이’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토치 릴레이는 최첨단 IT 아시안게임을 표방한 조직위의 대회 목표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인이 쉽고 재미있게 온라인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 토치 릴레이 앱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공되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라인, 웨이

보, 웨이신 등의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 간 근거리 무선통신(NFC)기능을 이용한 점화도 가능하다.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選手たちの夢、仁川AGメダルを公開

선수들의 꿈, 인천AG 메달 공개

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授賞メダルが公開された。前面は、開催都市・仁川を代表する空(Airport)、海(Seaport)、情報(Teleport)、レジャー(Leisureport)、ビジネス(Businessport)など5つの要素を連結させた5角形のペンタポートをモチーフとして形象化。裏面には授賞メダル史上初のハン

글と英文のスローガン’Diversity Shines Here /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並行して表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상메달이 공개됐다. 앞면은 개최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하늘(Airport), 바다(Seaport), 정보(Teleport),

레저(Leisureport), 비즈니스(Businessport) 등 5가지 요소를 연결하는 5각형의 펜타포트를 모티브로 형상화했다. 뒷면에는 시상메달 사상 처음으로 한글과 영문 슬로건(Diversity Shines Here /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을 병행해 표기했다.

国会議員 イ・ジャスミン、多文化広報大使委嘱

국회의원 이자스민 다문화 홍보대사 위촉

韓国初の多文化国会議員である イ・ジャスミン議員が、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広報大使に任命された。仁川アジア競技大会組織委員会は、先月11日 松島のミチュホルタワーでイ・ジャスミン議員を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多文化分野の広報大使に委嘱した。この日イ・ジャスミン議員は、“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成功的な開催のために、広報大使として努力すること”とし、

“今大会において、45カ国すべてのアジアの国が一緒になる和合の意を付与するためにも、多文化の価値を知らせることに最善を尽くす”との抱負を明らかにした。

한국 최초의 다문화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이자스민 의원을

아시아경기대회의 다문화 분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이자스민 의원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 45개국 모든 아시아 나라가 함께 한다는 화합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문화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지은 기자
지운(차지은)記者 minsable@hanmail.net

ビジョン2014, 青年サポーターズと共に

AG 청년서포터즈, 민간외교활동으로 아시안게임과 인천 알린다

仁川國際交流財団の青年サポーターズが、ビジョン2014プログラムに参与し、選手たちとの文化交流の先頭に立った。先月の5月から7月まで、イエメン、ベトナム、ラオスなどの9ヶ国が入国し、青年サポーターズとの出会いの時をもった。青年サポーターズは、各国家別の入国日時に合わせ歓迎式と接見式を開き、選手団と共に韓国の文化や、仁川を紹介するなど、韓国での日程を共にした。青年サポーターズイラクチームのパク ソ라(박소라)さんは、“選手たちと共にした時間は、とても貴重な経験でした。選手たちもまた、忘れることのない思い出になったと報告されています。これを機に、選手たちとの持続的な交流を通し、応援していくつもりです。”と明かした。



ビジョン2014プログラムは、仁川市が推進しているアジアスポーツ弱小国を支援するプログラムだ。仁川

市は今年、ビジョン事業として、18ヶ国 25分野の選手団を仁川へ招請し、転地訓練やスポーツ装備などを支援している。

인천국제교류재단 청년 서포터즈가 VISION 2014프로그램에 참여해 선수들과 문화교류에 앞장섰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예멘, 베트남, 라오스 등 9개 국가가 입국해 청년 서포터즈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 서포터즈는 각 국가별 입국날짜에 맞춰 환영식과 접견식을 가졌으며 선수단과 함께 한국의 문화 및 인천을 소개하는 등 한국에서의 일정을 함께 했다. 청년 서포터즈 이라크팀의 박소라 씨는 “선수들과 함께한 시간은 귀중한 경험이다. 선수들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선수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ISION 2014 프로그램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아시아 스포츠약소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시는 올해 비전사업으로 18개 국가 25개 분야 선수단에 대해 인천초청 전지훈련, 스포츠 장비 등을 지원했다.

차지은 기자
－チャロジウン(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トライポート・ロック・フェスティバル開催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 열린다

8月1日から3日まで開かれるトライポート・ロック・フェスティバルは、1999年のはじまりから、韓国にフェスティバル文化を導いてきた。今年参加の海外チームの中では、ブリットポップ界の最強のバンドの名を守ってきたKasabianと、2008年のペンタポートで初めて紹介された、ブリットポップの3代ミュージシャンであるTraviが、再びロック・フェスティバルの舞台に立つことになった。また、’The Great Escape’などの曲で、国内でも多くのマニア

層を保有しているBoys Like Girlsが初来韓。国内ラインナップでは、イ・スンファンが昨年の‘野菊’に続き、国内のレジェンドミュージシャンの座を続け、また大韓民国のヘビーメタルの元祖、クラッシュなどが出演する。

今年、ペンタポートの舞台は、総6万坪の大規模の専用フェスティバル会場 ’松島 月の光 祭り 公園’(PentaPark)だ。ペンタポート100チームあまりの、すべての舞台を満喫できる3日券の値段

は、187,000ウォン。

8월 1일부터 3일 까지 열리는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은 1999년을 시발점으로 한국에 페스티벌 문화를 이끌어 왔다. 올해 참가 해외 팀으로는 브릿팝계의 최강 밴드를 지키고 있는 Kasabian과 2008년 펜타포트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브릿팝의 3대 뮤지션인 Travis가 다시 락 페스티벌 무대에 선다. 또 ’The Great Escape’ 등의 곡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Boys Like Girls가 첫 내한한다. 국내 라인업으로는 이승환이 작년 들국화에 이어 국내 레전드 뮤지션 자리를 이어가고 대한민국 헤비메탈의 원조 크래쉬 등이 출연한다.

올해 펜타포트의 무대는 총 6만평의 대규모 전용 페스티벌 장소인 ’송도달빛축제공원’(Penta Park)다. 펜타포트 100여 팀의 모든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3일권 가격은 187,000원이다.

市民安全体験館の 建立推進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仁川市は松島国際都市に、市民安全体験館の建設を推進。2018年まで、延寿区の松島洞松島ヌリ公園に地下1階、地上4階建て規模で建設。体験館では、地震・台風・火災・海洋安全体験館、消防施設の実習室、応急処置の実習室、4D映像館などが造成される予定。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송도누리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체험관에는 지진·태풍·화재·해양안전 체험관, 소방시설 실습실, 응급처치 실습실, 4D 영상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月尾公園に無料キャンプ場ができた

월미공원에 무료 캠핑장 생겼다



8月末、月尾公園展望台周辺に、’家族ヒーリングキャンプ場’がオープン。キャンプ体験は、1日14チーム以内に制限さ

れており、キャンプ道具は個別に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キャンプ用バーナーのほか、他の炊事道具は使用できず、動

物連れは不可。月尾公園には、伝統家屋・庭園、展望台などがあり、家族旅行に最適で、特に仁川沖を見わたすことができ、海の夜景も鑑賞することができる。

キャンプ体験の申請は、8月27日まで、西部公園事業所で (<http://wolmi.incheon.go.kr/>)하면 受け付けている。

8월 말까지 월미공원 전망대 주변에 ’가족 힐링 야영장’이 개장된다. 야영 체험은 1일 14팀 이내로 제한되며 야영도구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캠핑용 버너 외에 다른 취사도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을 데려 올 수 없다. 월미공원은 전통가옥·정원, 전망대 등이 있어 가족 나들이에 좋고 특히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보여 바다의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야영 체험 신청은 8월 27일까지 서부공원 사업소에 (<http://wolmi.incheon.go.kr/>)하면 된다.

仁川空港鉄道のチョンラ駅開通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개통

空港鉄道の11番目の駅である青蘿国際都市駅が、先月21日より開通。黔岩駅から空港方面4.7km離れたチョンラ駅は、仁川市西区の景西洞 新空港 高速道路の北仁川ナロウルモック付近の地上2階と、地上の駅舎として建てられた。ソウル〜チョンラ駅の運賃は、1,650ウォン、全体区間のソウル〜仁川空港駅の運賃は、従来と同様の3,950ウォン。チョンラ駅周辺には、日の出の名所と知られるチョンソジンと、遊覧船のある京仁アラベッキル 仁川ターミナルがある。新しく開設されたチョンラ駅〜チョンソジン自転車道路を利用し、自転車ハイキングも可能。

공항철도 11번째 역인 청라국제도시역이 지난 달 21일 개통됐다. 검암역에서 공항 쪽으로 4.7km 떨어진 청라역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 나들목 인근에 지상 2층 지상 역사로 지어졌다. 서울~청라역 운임은 1천650원이며 전체 구간인 서울~인천공항역 운임은 기존과 같은 3천950원이다. 청라역 인근에는 해돋이 명소인 정서진과 유람선이 있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이 있다. 새로 개설된 청라역~정서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 하이킹도 가능하다.

IFEZ観光・グルメブログ開設

IFEZ 관광·맛집 블로그 개설

IFEZ(仁川經濟自由区域)、内松島・永宗・靑蘿地域の観光・グルメブログが開設。ブログはIFEZ・私の観光施設とおいしい店を連携し、スマートフォン時代に合わせ、いつでも、どこでも必要に応じ、見どころと食べ物を検索でき、便利に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観光・グルメブログの住所は、<http://blog.naver.com/ifezucity>、ポータルサイトでアンケート調査結果で選ばれたブログの名称は、’IFEZINE’を入力すると、検索可能。

IFEZ(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영종·청라지역 관광·맛집 블로그가 개설되었다. 블로그는 IFEZ 내 관광시설과 맛집을 연계하고,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언제 어디서든 필요시 볼거리와 먹거리를 검색,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광·맛집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ifezucity>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블로그 명칭 ’IFEZINE(아이페즈인)’을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あの島へ行きたい - 仁川 沿岸埠頭から旅立つ島旅行

그 섬에 가고 싶다 _ 인천 연안부두에서 떠나는 섬여행



¥仁川の沖に浮かぶ100個の島。25の有人島と、75の無人島でなる甕津郡は、西海の最北端にある。長年大切にしてきた天恵の自然に会うため、一年に440万名が仁川の島を訪れる。陸地と島を結ぶ沿岸埠頭の国際旅客ターミナルからは、甕津郡の島のほかにも済州や中国に出航する船の汽笛の音でいつも活気づいている。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100개의 섬. 유인도 25개와 무인도 75개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서해의 최북단에 있다. 오랜 세월 간직해온 천혜의 자연을 만나기 위해, 한 해 440만 명이 인천의 섬을 찾는다. 육지와 섬을 잇는 연안부두의 국제여객터미널은 옹진군의 섬 외에도 제주, 중국으로 출항하는 배의 기적소리로 늘 활기차다.

紫月島-伊作島-昇鳳島

沿岸埠頭から1時間ぐらい離れた紫月面一帯には、紫月島、大伊作島、小伊作島、昇鳳島などの島が連なっている。紫月島チャンゴル海岸では、引き潮になるとアサリ、タコ、サザエ狩りが楽しめ、バカンスシーズンには、松の陰で覆われた広い砂浜に、お手洗いやシャワー室等が開放され、海水浴を楽しむのに快適。映画’島の先生’で広く知られた大伊作島は、一日に2回、’海の上の蜃気楼’と呼ばれる、プールなどが隠密に姿を現す。海拔1600mの負児山の赤い雲の橋に上がると、砂の島のプールや、徳積群島の全景が目の前に広がる。浅い水深、澄んだ水のイイレ(이일레)浜辺と、海松とが調和した山林浴場があり、キャンピングなど、家族の休暇地として最適な昇鳳島は、とても静かで繊細な風景の島だ。

- 紫月島/伊作島/昇鳳島 www.myjawoldo.com
運賃: 往復 大人 38,500원 小人 9,300원
우리고속페리어(株) www.urief.co.kr 032-887-2891~5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연안부두에서 1시간 거리의 자월면 일대에는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등의 섬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자월도 장골해변은 썰물 때면 바지락, 낙지, 소라 잡는 재미가 쏠쏠하고 휴가철에는 소나무 그늘이 드리운 넓은 백사장엔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개방해 해수욕을 즐기기가 편하다. 영화 ‘섬마을 선생’으로 널리 알려진 대이작도는 하루에 두 번 ‘바다 위의 신기루’로 불리는 풀등이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해발 1600m의 부아산 빨간 구름다리에 오르면 모래섬 풀등과 덕적군도의 전경이 한 눈에 펼쳐진다. 얇은 수심, 맑은 물의 이일레해변과 해송이 어우러진 삼림욕장이 있어 캠핑 등 가족 휴가지로 좋은 승봉도는 한적하고 아기자기한 풍경의 섬마을이다.

- 자월도/이작도/승봉도 www.myjawoldo.com
운임: 왕복 대인 38,500원 소아 9,300원
우리고속훼리(주) www.urief.co.kr 032-887-2891~5

徳積島

快速船に乗って50分もあれば着く徳積島は、所々に200年近く経った松林がうっそうとし、熊岩、三兄弟岩のような、奇岩怪石が絵画のように展開。光り輝く銀色の砂の西浦里海水浴場は、徳積八景のひとつとして、西海では最も美しい海水浴場として名高い。

- 徳積島 www.mydeokjeokod.com
快速船: 往復 大人 46,000원 小人 22,950원
一般船: 往復 大人 52,700원 小人 26,350원
高麗高速フェリー(株), ケーエス海運(株) www.kefship.com 1577-2891

덕적도

쾌속선을 타고 50여 분이면 닿는 덕적도는 곳곳에 200년 가까이 된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곱바위, 삼형제 바위와 같은 기암괴석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반짝이는 은빛 모래의 서포리 해수욕장은 덕적 팔경 중에 하나이며 서해의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꼽히기도 한다.

- 덕적도 www.mydeokjeokod.com
쾌속선: 왕복 대인 46,000원 소아 22,950원 / 일반선: 왕복 대인 52,700원 소아 26,350원
고려고속훼리(주), 케이에스해운(주) www.kefship.com 1577-2891

▶Tip. 仁川市民 50%割引(身分証持参) 인천시민은 신분증 지참시 선박요금 50%할인

주 란 기자

-조슈로란(주란) 記者 rri0217@naver.com

西海 5島 - 白翎島、大青島、小青島、延坪島、小延坪島

快速船でも4時間あまりとばせば行くことのできる最北端の島、白翎島とその右に大青島、小青島、延坪島、小延坪島を結ぶ西海の5島。この島々のすぐ近くには、北方限界線(NLL)が引かれている。緊張を緩めることのできないところであり、一般人の出入りが統制されているが、それだけに純粋性を秘め、その大部分が韓国の代表的な安保観光地に指定されている。5島の中でも最大の白翎島は、岩の絶壁の秘境に感嘆がおのずと出てくる頭武津、それから、あの沈清が身を投げたという印塘水、また天然記念物であるサゴ(사과)海岸と豆石海岸も有名だ。荒く高い山の多い大青島は、小さな’砂漠’を抱いている。強い風に飛ばされてきた砂が積もり作られた海岸砂丘で、高さ30メートルの砂丘が1kmほど続く。足の裏に伝わってくるきめ細かな砂の肌触りは、本当の砂漠を歩いているような気分にさせてくれる。

- 白翎島 www.baengnyeongdo.com
往復運賃: 大人 123,500원 小人 30,500원
- 大青島 www.daecheongdo.com
往復運賃: 大人 117,300원 小人 58,750원
우리고속페리어(株) www.urief.co.kr 032-887-2891-5

서해 5도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쾌속선으로도 4시간여를 달려야 갈 수 있는 최북단의 섬 백령도와 그 오른쪽으로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묶어 서해 5도라 한다. 이 섬들을 바로 가까이에 북방한계선(NLL)이 그어져 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인 만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가 됐다. 5도 중 가장 큰 백령도는 바위 절벽의 비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두무진, 심청이가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 천연기념물인 사곶해변과 콩돌해안이 유명하다. 거칠고 높은 산이 많은 대청도는 작은 ‘사막’을 품고 있다. 거센 바람에 날아온 모래가 쌓여 만든 해안사구로 높이 30미터의 모래 언덕이 1km 정도 이어진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고운 모래의 촉감에 진짜 사막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백령도 www.baengnyeongdo.com
왕복운임: 대인 123,500원 소아 30,500원
- 대청도 www.daecheongdo.com
왕복운임: 대인 117,300원 소아 58,750원
우리고속훼리(주) www.urief.co.kr 032-887-2891~5



仁川市 多文化関連機関 連絡先

인천시 다문화관련기관 연락처

仁川市役所 多文化政策課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 032-440-2871
仁川広域市 南洞区 九月洞 1135-11パークアベニュービル7階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아베뉴빌딩 7층

中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91-1094
仁川広域市 中区 ジェムルリヤン路 122 奎洞信用協同組合ビル4階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2 담동신협빌딩 4층

桂陽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41-2860~1
仁川広域市 桂陽区 桂陽山路 102番通り 5 社会福祉会館 3階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南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75-1577
仁川広域市 南区 キョンウォン(경원)大路 890 B25号 (朱安6棟 ポマリジュンビル)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5층 (학익동)

南洞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12
仁川広域市 南洞区 マンス6洞 チャンスン路 5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로 59-21

富平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1800
仁川広域市 富平区 キルチュ路53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延寿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40
仁川広域市 延寿区 チョンヌン大路 109(タップピオンビル4階)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4층)

西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0
仁川広域市 西区 ギョンミョン大路 693番通り 6 (公村洞 305-1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공촌동 305-13)

東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773-0297
仁川広域市 東区 フアドジン路 44番通り 21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44번길 21

江華郡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 933-0980
仁川広域市 江華郡 江華邑 北門通り 11-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仁川外国人力支援センター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032-431-5757
仁川広域市 南洞区 ノンヒョン洞 636-3 ミョンジンプラザ12階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층

(社)移住民社会統合支援センター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 032-773-0909
仁川広域市 中区 栗木洞 1-33 4階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1-33 4층